

다산포럼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위원장

1866년 봄 조선에서는 프랑스 신부들이 조선인 천주교도들과 함께 처형되는 병인박해가 있었고, 가을에는 프랑스 군대가 영종도와 강화도를 점령한 병인양요도 있었다. 조선을 침공한 프랑스의 제국주의적 야욕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불안한 권력 기반 위에서 좌측 우돌하다 병인박해로 빌미를 잡힌 대원군 정권의 오판 역시 합리화될 수 없다. 게다가 병인년 내내 지속된 외교와 국방의 위기 속에서 대원군 정권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열악한 환경의 병졸들에게 항전 의지만 강요하고 있었다.

당초 2차 아편전쟁 수습 과정에서 청나라로부터 연해주를 할양받아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대치하게 된 러시아가 국경을 넘나들며 통상을 요구해 온 일로 인해 조선 조정에는 불안이 휩싸이고 있었다. 대원군은 프랑스의 힘을 빌려 러시아를 제압하자는 천주교도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마침 조선에서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던 파리외방성교회 신부들에게 포교의 자유를 암시하며 한양으로 불러들이도록 천주교도들과 협상하였다. 프랑스 본국과의 교섭창구로 삼으려 했던

항전 의지와 반국가세력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신부들이 대원군을 만나러 오는 사이 조정에는 북경에서 서양 세력의 잔학 행위가 보고되고, 이로 인해 여론이 쇄국으로 더욱 쏠리며 천주교 배척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고종의 위태로운 즉위 이후 아슬아슬한 권력 기반을 나누며 협조하던 조대비마저 대원군과 천주교도의 협상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대원군으로서는 정치 생명에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이 순간 대원군은 협상 파트너였던 천주교도들을 처절하게 탄압하며 거대한 공안정국을 형성해 권력 안정을 도모하였다.

프랑스 극동함대의 로즈 제독은 이를 빌미로 조선을 침공할 계획을 세웠고, 청나라는 조선에게 프랑스의 침공에 대비하라고 자문하였다. 대원군 정권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프랑스 극동함대는 강화도와 한강 하구의 수로를 측량하며 해안에서 위력을 과시했다. 이제 조선은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직접적 침공의 공포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때 총용사로 있던 신현(申顯)은 자신을 보좌하던 강위(姜緯)에게 해안 방어 전술을 구상하게 했다. 10년 뒤 개항의 실무를 주도하게 되는 강위도 이때까지는 해안 방어를 통해 조선을 보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다. 강화도에서 한양까지의 경로를 점진한 강위는 민보(民堡)를 제안한다. 민보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소규모 성채를 곳곳에 건설하여, 정규군이 제대로 방어전을 치르기 어려운 때 전술적으로 민가를 소각하고 백성들을 민보에 수용하여 적이 지저 몰러날 때까지 능

성하게 하는, 일종의 청야전술(淸野戰術)이다. 백성들이 농성하고 있는 민보를 배후에 두고 깊숙이 공략해 들어가는 것은 침략군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다. 민보를 하나하나 함락시키면서 전진한다면 공략 속도가 매우 더뎌져서 방어군은 유리한 전황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예군 운영을 기대하기 힘든 현실에서 백성들의 생존 의지를 해안 방어의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었던 것이다.

강위는 민보 설치를 요청하는 상소문을 대필하여 신현에게 제출하게 하고, 민보에 대한 후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권 실세를 찾아갔다. 그러나 정권 실세는 민보의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고 결과적으로 신현은 상소문을 제출하지도 못했다. 민보 설치를 반대한 이유는 백성들이 민보를 소굴로 삼아 조정에 대항할 것이 우려된다는 점이었다. 백성들의 생존 의지를 제물로 삼아 해안을 방어해 보려는 강위의 의도도 전쟁 공학적인 면에서 의문시될 수 있지만, 온 나라가 침공의 공포에 질려 있는 동안 백성들을 잠재적 반국가세력으로 간주하는 정권 실세의 공안적 판단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된다.

대비할 짧은 시간 동안 우왕좌왕하다 병인양요를 맞게 된 대원군 정권은, 괴롭다고 화친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요 도성에 쳐들어온다고 도망가는 것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는 포고를 발표하며 항전의 의지를 선전했다. 백성들을 잠재적 반국가세력으로 간주하는 정권이 무엇을 지키자고 항전의 의지를 불태운 것일까?

社說

아파트 보증사고 폭증 빨간불 켜진 광주·전남

최근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며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들이 세입자에게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보증사고 세대의 절반가량이 광주·전남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는 등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북기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총 3760건의 민간임대아파트 보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44.1%(1660세대)가 우리 지역으로 확인됐다.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금으로부터 건설비용을 조달받지 못하는 민간아파트는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의무 임대를 농도록 해 서민들에게 인기가 있다. 하지만 최근 보증사고가 잇따르면서 건설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입주주민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보증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수개월 동안

이사를 못하거나 새집 계약금을 낸 돈을 구하지 못하고, 특히 이중으로 대출 이자를 내가며 새집 중도금을 갚는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보증사고가 영세건설사가 많은 광주·전남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을 받아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주민을 확보해온 광주·전남지역의 건설사들이 부당산 경기가 침체하자 자금난과 보증사고에 휘말리고, 신용등급 또한 낮아지는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이단 보증사고로 지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위기상황인 만큼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금을 오랜 기간 돌려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입주주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주택도시기금을 건설사에 내주기 전 꼼꼼한 심사를 거쳐 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농촌도 빈부 격차 커져 저소득 농가 지원 절실

전남지역에서 고소득 특용 작물이나 과일 등의 재배를 통해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역대 부농들이 매년 늘고 있다. 전남에서만 무려 6000여 농가가 역대 부농의 꿈을 이뤘다고 한다. 하지만 고령 농가나 영세 농가의 소득은 제자리거나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농촌에서도 고소득 농가와 저소득 농가의 소득 차가 10배를 넘는다고 한다.

한때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졌던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문제가 이제는 농촌 내 빈부격차 문제로 옮겨간 모양새이다. 농업의 항구적인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안전한 생계 보장을 위해서라도 촘촘한 영농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내놓은 '2018-2022년 농가경제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농가 소득 상위 20% 농가(5분위)의 평균 소득은 1억 596만원이

되는데 884만 원에 불과, 1분위와 5분위 농가의 소득 격차는 무려 1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잘 버는 농가는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지만 못 버는 농가는 한 달에 75만 원 벌기도 빠듯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개인이 수입 증 소비와 저축 등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득, 즉 실제로 개인이 쓸 수 있는 소득을 뜻하는 '가처분 소득'은 무려 30배 가까운 차이가 났다.

역대 농인 5분위 농가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8730만 원에 달했으나 1분위 농가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298만 원에 그쳤다. 또한 5분위 고소득 농가는 비교적 젊은 50~6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1분위 저소득 농가는 70세 이상 고령농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부분의 농촌에서 고령화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전남도는 영세 고령 농가에 대한 맞춤형 농업 연계 및 복지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청춘 특특

청년 자립, 경제지원 넘어 심리적 지지 필요하다



조서현 동신대 상담심리학과 1년

나는 20살 청춘으로서 삶을 마주하며 고민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 대학생이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나누려고 한다.

최근 뉴스를 보면 청년들의 자립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거 불안정은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의 상당수가 높은 주거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취업과 결혼, 출산 등 삶의 중요한 선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올해 전세 사기 사건을 비롯해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겪는 불안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나 또한 이러한 문제와 맞닥뜨린 경험이 있다. 나는 청소년기를 씩터에서 보냈고, 그곳에서 자립의 첫걸음

을 내디뎠다. 이후 LH 청년전세임대를 통해 독립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독립 생활은 예상했던 것보다 쉽지 않았다. 경제적 부담은 물론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도 따라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겪는 불안을 나 역시 실감하게 되었다.

최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정 밖 청소년이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보나 지원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면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심리적, 정서적 지지와 같은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혼자서도 잘 살아야 한다'는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공감과 이해가 더해져야 한다. 청년들에게는 독립적인 삶뿐만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경험 속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다. 많은 청년들이 겪는 불안과 고립감을 상담을 통해 치유하고, 그들이 삶을 보다 건강하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다. 사회는 개인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기에 서로가 연결되어

지지해주는 사회적 구조가 필수적이다. 요즘 '가스라이팅'이나 '번아웃' 같은 문제들이 많이 거론되는 것처럼,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가 절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정작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다. 내면의 어려움, 정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봄과 소통의 기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사회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상담, 심리적 지원, 지역 공동체의 역할 등 다양한 차원에서 청년들을 위한 안전망이 구축된다면, 더 많은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글을 읽는 모든 청춘들에게 전하고 싶다. 우리는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있고,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때로는 방향을 잃을 수 있고, 많은 문제에 부딪히겠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이자,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이다.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더욱 강화되고 심리적 지지와 공감이 넘치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모두가 각자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길 희망한다.

기고

건강한 숲, 가치있는 숲을 위해



윤병선 사단법인 숲속의 전남 자문위원장 임학박사

우리나라 국토는 약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귀중한 자원을 일터, 쉼터, 쉼터로 활용하며 다음 세대에 아름답고 건강한 숲으로 물려주어야 한다. 산림을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선진국형 녹색도시국가 모델로 재탄생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산림부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의 다각화가 필수적이다. 산림복지의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창조를 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다.

또 임업을 경제적으로 활성화하는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는 노력과 함께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천연림을 개량하고 적지적수(適地適樹) 원칙에 따라 인위적인 산림환경을 조성하여 임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림의 장단기 경영 목표를 명확히 수립하고, 산주를 비롯한 자치단체, 사·군·읍·면·동, 그리고 주변 마을 주민들과의 긴밀한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산림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전문가의 임황(林況)과 지황(地況) 조사를 토대로 산림 경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임목(立木) 상태를 분석해 벌채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종과 작업종을 신중히 선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작업은 품목별, 시기별, 그리고 적지적수 원칙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산림은 단순한 목재 생산의 기능을 넘어 지역사회의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활력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건강한 숲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림정책, 국가 지원, 보조사업의 선정 및 지원 기준이 잘 마련되고 시행에 차질이 없는 점검도 반드시 해야 한다. 특히 공익가치 서비스 지불제는 산림경영 계획에 의거하여 나무 그루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구역내 산림자원을 관리하고 지역산업화에 나서 숲 속에서 일 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시책이다. 그러나 일부 산주,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과다벌채에 따른 어릴 적 향수가 사라지고 작업 시기를 놓쳐 실패지가 발생해 비판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모두의 사전 계획과 협력, 숲과 나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사)숲속의 전남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10년간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업 이사와들 일반 회원들의 꾸준한 협조와 지원으로 숲문화 운동을 펼치는 비영리 단체로 성장해 왔다. 전남의 녹색 변화를 이끄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이미 1억 2

루 나무 심기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해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어 공원 같은 매력적인 전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사)숲속의 전남에는 종교단체, 임업단체 대표 등 시·군에서 추천한 22명, 그리고 경관·산림·환경 등 전문가 12명, 50여 명의 이사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역량을 한데 모아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숲속의 전남은 제5기 임원진 출범과 함께 산림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산림청 등 행정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3대 가족 정원 만들기, 소외계층 숲체험 교육, 명품숲 발굴 시상 계획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숲속의 전남에서는 앞으로 산림 탄소 중립 ESG 경영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들이 국공유지를 활용해 명품숲 동산을 조성하도록 유도, 매력 있는 숲속의 전남 랜드마크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또 하나가 미래 후손들에게 건강한 숲을 물려주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주에 대한 부담없는 자문 활동을 시작했다.

우리 산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해야 한다. 숲은 자연임과 동시에 자원이 되어야 한다. 건강한 산림을 가꾸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실패를 줄이고 예산의 낭비를 줄여나가기 할 것이다. 앞으로 (사)숲속의 전남 자문위원회의 현장 밀착 자문에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

無等鼓

“나중에 하나가 밝혀지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이런 나쁜 짓을 했고요. 거짓말시켰고요. 누구 때리라고 그랬고요. 도둑질 하라고 그랬고요. 서로 손들면서 잘못을 막 공격을 하잖아요.”

최근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보수 패널(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언급하면서 활용한 비유다. 그는 답

임 교사가 바뀐 이후 태도를 바꿔 임석대의 악행을 폭로하고 저항하는 급우들을 소환하면서 “발화점이 이번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말로 시작해 말로 끝나는 한국 정치판에서 비유를 활용한 메시지는 특히 주목받는다. 최근 '비유정치'의 단골 소재가 이문열 작가의 단편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등장인물들이다.

기억되는 정치인이 이준석(경기 화성읍) 개혁신당 의원으로, 그는 지난해 3월 전당대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임석대를 소환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임석대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임석대에게 쫓겨 못 하는 학생들에 비유해 눈길을 끌었다. 소설 속 임석대는 무기력한 5학년 담임

교사의 목인 하에 급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군림하는 반장이었지만 6학년이 올라가서는 담임 교사가 바뀌면서 몰락한다.

다음 백 사건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처분 권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소심 선고, 마포대교 순시, 관저 공사 감사 결과를 통해 제기된 수의 계약 지시 여부, 채 해병 사건의 징계 무마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이 온갖 정치 이슈 한 복판에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최근 제기된 공천 개입 의혹이 트리거(방아쇠)로 작동할 수 있다는 말이

임석대

정치권에 흘러다닌다. 이준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최근 '머

로의 순간'(Morrow moment)이라는 말을 소개하며 “한국 언론에 머로 순간이 오고 있다”고 했다. CBS의 에드워드 머로가 지난 1954년 조 매카시(당시 상원의원)의 색깔론 공세를 비판했던 걸 두고 만든 말. 언론이 유력 정치인의 말을 조신하게 받아쓰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비판적으로 돌아서는 순간을 뜻한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논조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김지를 정치부 부장 dok200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 논설실장 蔡熙鍾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漢洙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24 | (FAX 222-8005) |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 여론매체부 220-0661 | (FAX 222-0195) |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 사진부 220-0693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 디지털부 220-0697 |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